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안정신¹ 정영숙² 정여진³ 서수균² Cooney, T. M.⁴

¹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노인생활환경연구소

²부산대학교 심리학과 ³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⁴Univ. of Missouri-Columbia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본 연구는 최근 20년 동안 서구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문헌 79편을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 연구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성공적 노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매우 다양한 구성요소로 접근이 되어 있으며,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개념의 합의 부재로 인하여 사용된 측정도구에 따라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들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노인 계층 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와 국내연구들에서 사용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화적 차이와 그 함의를 검토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 개념화 작업에서 문화적 접근과 한국 문화에서 잘 나이들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개념화의 필요성을 조명하였다.

주요어: 성공적 노화, 문화적 차이, 구성요소, 영향요인, 잘 나이들기

종게 나이 드는 것의 본질에 대한 Cicero(BC 44)의 고찰로부터 시작된 성공적 노화 개념은 일찍이 서구문화권에서 발달하여 한국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어온 주제로, 최근 국내외 노년학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기 접근은 주로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연구들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로 양분화 되어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이 두 측면을 통합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들은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중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3)

* 교신저자: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택적 최적화(SOC) 모델과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대표적이다(장휘숙, 2006). Baltes와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개인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Rowe와 Kahn은 활동이론에 입각하여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장휘숙, 2007a),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러한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연구자들마다 제안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들은 서로 중복된다는 점이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감,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등이 연구되어지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신체 및 정신 건강, 심리적 적응 및 인지적 기능, 친밀한 관계, 생산적 활동 등이 있다(강인, 2003; 김경연, 정영진, 2006;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박경란, 이영숙, 2002;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Baltes & Baltes, 1990; Chou & Chi, 2002; Crosnoe & Elder, 2002; Fisher, 1995; Ryff, 1989; Vailant & Mukamal, 2001). 그런데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영역과 범주로 나타나 개념화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감 등이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으로 공

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이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동시에 포함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도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과 결과를 측정하는데 명확한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어(Freund & Baltes, 1998), 하나의 변인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으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연구의 혼란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명확한 연구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owling, 2007).

이상에서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의 중복된 사용은 측정도구의 문제점과도 역시 관련된다. 이러한 중복된 사용의 문제점은 측정방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노화한 것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의 비율 차이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안정신, 2010). 서구에서 보고되는 성공적 노화자의 평균 비율은 35.8%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범위가 0.4%에서 95%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Depp & Jeste, 2006). 이러한 차이는 성공적 노화의 정의에 Rowe와 Kahn의 '신체적 기능 및 장애요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측정방법에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측정방법에 따른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성공적 노화연구의 측정상의 문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노인계층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이미 노인들의 연령이나 성별, 계층별, 건강수준별 특성의 차이에 대해 지적한 바(장휘숙, 2006; 홍숙자, 2010; Atcheley & Barush, 2004),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접근 역시 노인집단내 차이점을 고려하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령별 접근은 주로 노인계층 내 비교보다는 다른 연령집단들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고(강인, 2003; 박경란, 이영숙, 2002; 이창

식, 2007; 정순돌, 2007b) 노인 집단 내에서의 연령 구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계층에 따른 접근이나(김경연, 정여진, 2006;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성별에 따른 접근 역시 남녀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도달 수준,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이 각각 다름을 보이고 있어(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돌, 2007a; 홍현방, 2003) 노인계층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결과해석의 정확성과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서구에서 발달되어진 개념이라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서구와 한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측정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이를 획일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배경과 개인들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되고 있다(Torres, 2002). 따라서 한국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2008; 백지은, 최혜경, 2005; 성혜영, 유정현,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순돌, 2007a;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국내 연구에서의 성공적 노화는 주로 Rowe와 Kahn(1998)의 모델에서 제시한 개념과 유사하지만 가족관계(강인, 2003; 성혜영, 유정현,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와 재정적 안정(강인, 2003; 백지은, 2008; 정병은, 이기홍, 2009)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나타나 서구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배

경을 고려한 접근 및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개념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 기존에 개발된 성공적 노화 척도의 문제, 노인계층 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들에 착안하여, 국외문헌과 국내문헌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 개념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성공적 노화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국외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79편의 결과들을 개관함으로써,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 노인을 위한 성공적 노화 모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학술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KISS, RISS, EBSCOhost, Science Direct 그리고 Google 스칼라에서 'successful aging'을 키워드로 하여 1993년도부터 2010년까지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된 논문들을 찾아 읽고 이들 중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개념이나 조작적 정의를 밝히지 않은 연구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국내연구 44편, 국외연구 35편으로 총 79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이를 유목화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이 때 해당 논문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들을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요소를 영역별로 묶어서 연구한 경우에는(예: 심리적 측면, 생활만족, 가족관계; 김정식, 이은주, 2010), 영역이 아닌 영역 내 하위요소들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분류하였다. 한편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는 예측변인 뿐만 아니라 상관변인도 포함하였다.

각 연구들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196개, 영향요인은 86개였고, 국외연구에서는 각각 156개와 47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하여 노년학 관련 교수 1명과 노년학 전공자 박사과정 1명 그리고 석사과정 1명이 교차검사를 실시하여 분석자들 간 일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는 33개의 범주, 영향요인은 36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 총 79편에서 도출된 구성요소를 3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범주들을 인구통계학적 영역, 신체적 영역, 심리·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기타 영역으로 다시 유목화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총 33개의 범주 중 24개의 범주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중 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12.2%),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10.7%),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10.2%),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

계(7.7%),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7.1%),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7.1%),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6.6%),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6.1%),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5.1%)의 9개 범주로 나타난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사회적 영역이 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심리정신적 영역이 3개, 신체적 영역과 인구통계학적 영역에서 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는 33개의 범주 중 29개의 범주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빈도가 높게 나타난 구성요소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14.7%),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9.6%), 적응력·대처능력(8.3%),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계(7.7%),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5.7%), 인지적 기능유지(5.1%)의 6개 범주이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심리정신적 영역 3개, 사회적 영역 2개, 신체적 영역은 1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논문은 국내연구 44편 중 23편, 국외연구 35편 중 13편으로 총 38편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36개 범주로 나누어 표 2에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는 총 36개 범주 중 24개 범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구성요소를 살펴본 방법과 마찬가지로 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18.6%),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9.3%),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8.1%), 연령(7%), 성별(7%), 학력(5.8%), 배우자 유무(5.8%)의 7개 범주로 나타난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인구통계학적 영역이 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각각 1개씩 나타났다.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은 24개 범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 중

표 1.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요소의 범주별 비율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국내 (44개 연구) N(%)	국외 (35개 연구) N(%)
인구통계학적 영역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	13(6.6%)	6(3.8%)
교육	0(0.0%)	1(0.6%)
신체적 영역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24(12.2%)	23(14.7%)
신체적 외모	0(0.0%)	1(0.6%)
장수	0(0.0%)	2(1.2%)
생활양식(운동·흡연·음주·식습관)	0(0.0%)	4(2.5%)
심리·정신적 영역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21(10.7%)	15(9.6%)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	14(7.1%)	6(3.8%)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	10(5.1%)	4(2.5%)
인지적 기능 유지	9(4.6%)	8(5.1%)
개인성장·자기관리	7(3.6%)	2(1.2%)
자기통제감	6(3.1%)	2(1.2%)
자율성·독립적인 삶	5(2.6%)	7(4.4%)
욕심을 버리는 것·중용	3(1.5%)	1(0.6%)
정신적 건강	3(1.5%)	3(1.9%)
죽음 수용	2(1.0%)	0(0.0%)
적응력·대처능력	3(1.5%)	13(8.3%)
존경·과시성(자녀제외)	2(1.0%)	0(0.0%)
지혜·지식의 전수	2(1.0%)	1(0.6%)
목표의식	1(0.5%)	5(3.2%)
긍정성·유머	1(0.5%)	5(3.2%)
외로움의 부재	1(0.5%)	3(1.9%)
삶의 자세 및 태도	1(0.5%)	2(1.2%)
가치	0(0.0%)	3(1.9%)
생명력·활력	0(0.0%)	4(2.5%)
종교 및 영성	0(0.0%)	2(1.2%)
성격	0(0.0%)	3(1.9%)
사회적 영역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20(10.2%)	9(5.7%)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15(7.7%)	12(7.7%)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	14(7.1%)	0(0.0%)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12(6.1%)	6(3.8%)
기타 영역		
일상의 순조로움	7(3.6%)	0(0.0%)
사회환경(사회자원 및 시설)	0(0.0%)	3(1.9%)
총합	196(100%)	156(100%)

표 2.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사용된 영향요인의 범주별 비율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	국내 (23개 연구) N(%)	국외 (13개 연구) N(%)
인구통계학적 영역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	8(9.3%)	3(6.4%)
연령	6(7.0%)	2(4.3%)
성별	6(7.0%)	2(4.3%)
학력	5(5.8%)	1(2.1%)
배우자유무	5(5.8%)	0(0.0%)
자녀의 수	1(1.2%)	0(0.0%)
결혼 지속 년수	1(1.2%)	0(0.0%)
거주지역	1(1.2%)	0(0.0%)
신체적 영역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16(18.6%)	10(21.3%)
생활양식(운동·흡연·음주·식습관)	2(2.3%)	1(2.1%)
심리·정신적 영역		
종교 및 영성	4(4.7%)	1(2.1%)
우울·고독감	3(3.5%)	0(0.0%)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	3(3.5%)	1(2.1%)
가치	1(1.2%)	1(2.1%)
목표의식	1(1.2%)	2(4.3%)
생애보람	1(1.2%)	0(0.0%)
죽음 준비	1(1.2%)	0(0.0%)
자기관리	0(0.0%)	1(2.1%)
상상력·창조성	0(0.0%)	2(4.3%)
정신적 건강	0(0.0%)	2(4.3%)
적응력	0(0.0%)	1(2.1%)
자아 및 현실수용·자아통합	0(0.0%)	2(4.3%)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0(0.0%)	1(2.1%)
긍정성	0(0.0%)	1(2.1%)
인지적 기능 유지	0(0.0%)	1(2.1%)
성숙한 방어기제	0(0.0%)	1(2.1%)
성격	0(0.0%)	2(4.3%)
사회적 영역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7(8.1%)	2(4.3%)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5(5.9%)	0(0.0%)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4(4.7%)	0(0.0%)
사회적 지지	3(3.5%)	2(4.3%)
기타 영역		
노인이미지·차별경험	1(1.2%)	0(0.0%)
생애사건	1(1.2%)	0(0.0%)
사회환경(사회자원 및 시설)	0(0.0%)	4(8.5%)
유년기 가정환경	0(0.0%)	1(2.1%)
총합	86(100%)	47(100%)

5% 이상 빈도를 차지한 요인을 빈도순으로 보면,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21.3%), 사회환경(8.5%),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6.4%)의 3개 범주이며, 영역별로는 인구통계학적 영역, 신체적 영역, 기타 영역에서 골고루 1개씩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Rowe와 Kahn(1998)의 척도와 Baltes, Baltes, Freund 그리고 Lang(1999)의 척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연구자가 순수 개발한 척도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Rowe와 Kahn의 척도를 사용한 국내외의 연구 수는 각각 2편(고대선, 2005; 김미령, 2008; Rowe & Kahn, 1997; 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Rowe와 Kahn의 척도에 다른 항목들을 추가한 연구는 7편 모두 국내 연구였다(김경호, 김지훈, 2008; 김경호, 김지훈, 2009;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성혜영, 조희선, 2006; 윤현숙, 유희정, 2006; 윤현숙, 유희정, 2007;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근석, 유경, 장숙량, 2008). 추가된 항목으로는 심리적 안녕감, 삶(생활)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주로 심리적 영역의 요인들이었으며, Rowe와 Kahn의 세 요소가 주로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altes 등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국내 1편 국외 3편으로 나타나(하정연, 오윤자, 2003; Baltes & Baltes, 1993; Baltes, 1993; Schulz & Heckhausen, 1996), 국외 연구는 Rowe와 Kahn의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반면 국내 연구는 Rowe와 Kahn의 척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 변인 그

자체보다는 변인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나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 상태’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연구자 순수 개발척도로는 국내연구에서는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김희주, 주경희 2008; 정순돌, 2007b)와 김동배(2008)의 척도(이은석, 안찬우, 2010; 전상남, 신학진, 2009a; 전상남, 신학진, 2009b)가 각각 3편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백지은의 척도(2006) 역시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성공적 노화 개념에 접근한 것이고, 안정신, 강인, 김윤정(2009)의 척도는 백지은(2006)에서 사용된 성공적 노화관련 85문항을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최종 25문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두 척도 모두 한국노인이 경험하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서구에서 만들어진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는 차별화된 한국적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김동배(2008)의 척도 또한 한국노인에 대한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 및 34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31문항을 개발하였는데,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와 더불어 한국적 문화의 관점에서 현재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여러 척도들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이를 종합하여 성공적 노화를 측정한 연구는 국내 6편, 국외 3편으로 밝혀졌는데(김윤정,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성혜영, 유정현, 2002; 이종영, 2005; 정순돌, 2007a; 홍현방, 최혜경, 2003; Faber, Gussekloo & Knook, 2001; Mossakowska, et. al. 2008; Reeker, 2002),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백지은과 최혜경의 척도(2005)와 Baltes 등의 SOC 척도를 합한

연구(김윤정, 2008), Rowe와 Kahn의 요소로 접근하는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를 합한 연구(성혜영, 유정현, 2002), 김미혜와 신경림(2005)의 척도와 영성척도(SWBS),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를 합한 연구(정순들, 2007a), Rowe와 Kahn의 요소에 대한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 그리고 Ryff(1989)의 척도를 합한 연구(홍현방, 최혜경, 2003) 등이 있

다. 이러한 중다척도의 사용은 기존 단일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된 것이기는 하나, Rowe와 Kahn의 개념에 대한 척도와 Baltes 등의 척도는 성공적 노화를 서로 다른 관점 즉 상태와 과정으로 각각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개념 측정 시 함께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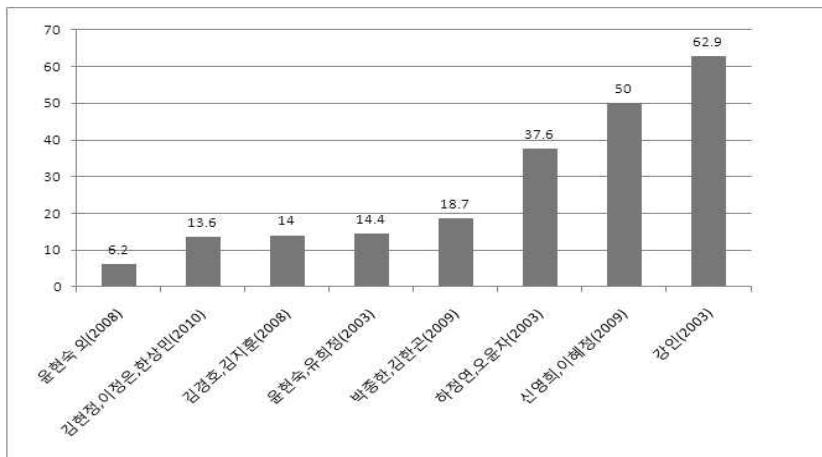


그림 1.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제시한 국내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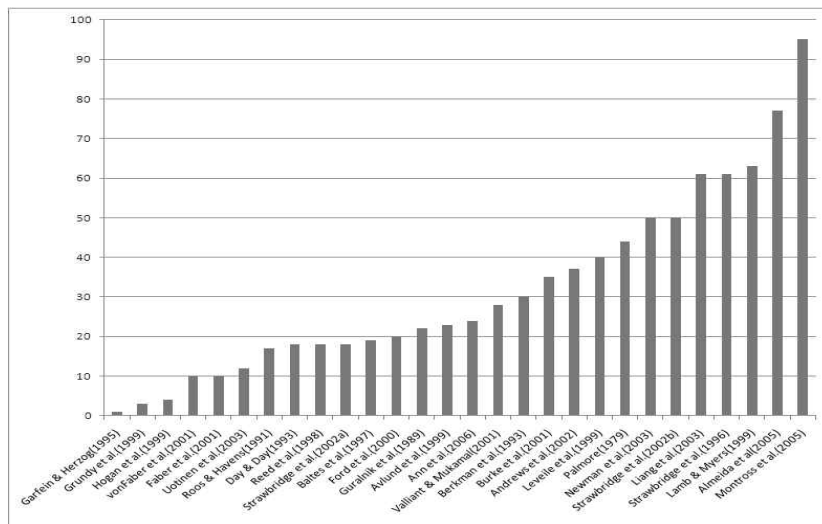


그림 2.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을 제시한 국외연구

한편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은 매우 달라진다. 그림 1과 그림 2에는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서 제시된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량(200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6.2%,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2010)의 연구에서는 13.6%, 김경호와 김지훈(2008)의 연구에서는 14%, 윤현숙과 유희정(2006)의 연구에서는 14.4%, 박중환과 김한곤(2009)의 연구에서는 18.7%, 하정연과 오윤자(2003)의 연구에서는 37.6%, 그리고 신영희와 이혜정(2009)의 연구에서는 50%, 강인(2003)의 연구에서는 62.9%로 보고되고 있어, 최소와 최대 비율 사이에 최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현숙 외(2008)의 연구는 Rowe와 Kahn의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매우 엄격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반면 강인(2003)의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노인이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외연구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국내보다 더 크게 차이나는데, 특히 자기보고식 방법과 척도를 사용한 객관적 측정 방법 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실제 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연구자들이 구성한 개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노인집단 내 차이

성공적 노화를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노인은 단일 특성을 지닌 동질집

단이 아니라 성별, 연령,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이질집단이라는 점이다(김경연, 정여진, 2006; 장휘숙, 2006; 홍숙자, 2010; Atcheley & Barush, 2004; 양영자, 2008에서 재인용; Clemens & Naegele, 2004). 성(gender)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 층화요인으로서 성별에 따라 삶의 맥락 즉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녀에게 상이한 조건과 경험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 노화는 분명 성별화 된 과정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중 성별차를 살펴본 연구는 7편으로 나타났으며(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돌, 2007a;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 성공적 노화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노인(강인, 2003; 김미령, 2008; 유희정, 2007; 정순돌, 2007b) 혹은 남성노인(정여진, 안정신, 2010)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도 있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별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2편(Mossakowska, et. al, 2008; Reeker, 2002)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 1편(Tate, Lah, & Cuddy, 2003)이 있었고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및 중요성의 차이가 나타나 남성은 배우자를 여성은 자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여성노인이 보다 더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최혜경, 2005; 신영희, 이혜정, 2009; 정순돌, 2007a;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 또한 성공적 노화 점수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신영희, 이혜정, 2009), 이는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을 더 중시하는 여성노인을 객관적 지표만을 이용하여 측정한 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령별 접근은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조사한 연구(김경호, 김지훈, 2008; 김미령, 2008;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박종한, 김한곤, 2009; 홍현방, 2002; 홍현방, 2003)와 노인세대와 타세대간 차이를 보기 위한 연구(박경란, 이영숙, 2002; 이창식, 2007; 정순돌, 2007b)로 나뉘어지는데,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노년기를 하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노년기 구분 기준은 대체로 75세를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거나(정병은, 이기홍, 2009; 홍현방, 2003)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고 있었다(김경호, 김지훈, 2008; 김미령,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노인의 연령집단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인식 및 도달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며, 노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거나 영향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도 연령에 따른 노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수준은 사회구성원들의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노년기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경제적 계층을 고려한 성공적 노화 연구는 5편이었는데(김경연, 정여진, 2006; 김경호, 김지훈, 2008;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성혜영, 유정현, 2002;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근접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수준이 나타났고(김경호, 김지훈, 2008),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김경연, 정여진, 2006;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이와 같이 노인집단 내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및 도달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노인집단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명확히 수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노화에서의 문화적 차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두 문화권에서 공통요소와 차이가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상위빈도를 보이는 구성요소로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심리적 안녕감·삶의 만족,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사회적 지지·타인과의 긍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가 매우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1 참조).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Rowe와 Kahn의 모델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 일상의 순조로움이 국내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나타났지만 국외연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 생명력·활력, 사회 환경은 국내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외연구에서는 적응력·대처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국내연구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와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가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2 참조). 따라서 건강과 경제수준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강력한 예측변인이 된다는 것인데, 이

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외에는 차이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이 중요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연구에서는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 유무’는 한국노인들에게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데 반하여 국외연구에서는 단 한 번도 접근되지 않았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및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또한 국외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구성요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국외의 연구에서 가장 상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서구에서 가족변인이 성공적 노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겠다. 또한 성격, 변화에 대한 적응, 긍정성, 상상력·창조성은 국내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항목으로, 이런 변인들은 자신의 발전과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서구의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들이라 하겠다.

결론 및 함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 총 79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을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며 서로 중복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문제점과 성공적 노화자 비율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노인계층 내의 구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한국의 두 문화권에서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서 공통적인 변인과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발견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은 5개 영역 33개 범주로, 영향요인은 5개 영역에 36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영역은 구성요소보다 영향요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 상태·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의 2개 변인은 국내외 모두에서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으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영역에서도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와 생활양식이 모두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중복되어 나타났고, 심리·정신적 영역에서는 9개의 범주가 중복되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4개 범주가 모두 다 중복되며, 기타 영역에서는 사회환경 1개 항목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는 구성요소에도 영향요인에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변인들은 성공적 노화의 측정요소인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공적 노화 연구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개념화되고는 있으나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구성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매우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초점이 다르며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구되어져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간 중복으로 인한 성공적 노화 개념화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자들간 합의 없이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강인, 2003; 김정연, 정여진, 2006; 김미령, 2008; 김미혜, 신경

림, 강미선, 강인, 2004; 김윤정, 2008; 박경관, 이영숙, 2002; 유희정, 2007;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량,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최혜경, 2008; 하정연, 오운자, 2003).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에 관한 문헌 개관 결과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적 합의부족은 측정도구상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는 응답자들의 개념적 합의부족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성공적으로 노화한 노인의 비율이 연구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에서 이러한 점이 입증되고 있다(강인, 2003; 김경호, 김지훈, 2008;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박종한, 김한곤, 2009; 신영희, 이혜정, 2009;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량, 2008; 윤현숙, 유희정, 2006; 하정연, 오운자, 2003; Depp & Jeste, 200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측정도구들이 다양하지만 그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여야 각 연구결과들의 통합적 또는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 성공적 노화 연구의 대부분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객관적 요소들과 주관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 연구별로 성공적 노화자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Rowe와 Kahn의 요소를 근거로 객관적 기준들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국내외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안정신, 2010). 따라서 성공적 노화연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와 동시에 응답자들의 개념에 대한 합의도 고려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개념적 합의부족

과 측정도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론에 근거한 개념발달과 가능한 인과경로 규명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을 구분함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Bowling, 2007). 또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른 성공적 노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수준이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그리고 건강수준별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은 성공적 노화연구에서 집단 내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노인들의 집단 내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구대상자들이 한국노인들을 대표한다는 가정 하의 결과들이 대다수여서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결과 해석의 오류가 매우 심각하다. 전 생애 과정동안 남는 각각 다른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노년기에 이르므로 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년기 이후부터 노년기에는 개인적 의미구조의 중요도에 있어 개성중심성에서 관계중심성으로 변화가 있으므로 노년기에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서 타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나타난다(Ryff, 1989).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관계 중심적이므로(Westerhof & Bode, 200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나 영향요인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성공적 노화연구에서는 노인개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 모두에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와 국외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상위빈도를 보이는 구성요소는 ‘신체적 건강 및 기능유지’ ‘사회적·생산적 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자기통제감’ ‘사회적 지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이었으며, 특

히 신체적 건강과 활동참여는 국내와 국외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노인들에게 있어 이 두 구성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Rowe와 Kahn의 모델을 근거로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성공’ ‘안락한 생활, 일상의 순조로움’은 국내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국외연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 국내연구에서만 구성요소로 나타난 반면 ‘자율성, 독립적인 삶’ ‘인지적 기능 유지’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 생활만족’ 세 요소는 국외연구에서만 상위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내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자녀와 관련된 요소가 한국노인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집단주의 가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인들은 문화적 특성상 가족관계 및 자녀를 자신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결부하여 지각하는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서구노인들은 독립적인 삶과 이를 위한 적응력·대처능력, 생활양식, 사회환경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에 있어 국내와 국외연구 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 또한 발견되는데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는 문화적 맥락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영향요인들은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느냐에 따라 연구마다 매우 다르게 설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성공적 노화에서 자녀와 가족이 갖는 함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성공적 노화에서 갖는 함의에서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한국과 서구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사회적 관념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 역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재된 가치에 따라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Tornstam, 1994), 어느 문화권에 사느냐에 따라 구성원이 지향하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와 방법이 다를 수 있다(Torres, 2002, 2003). 실제로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기실현을 이상적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하는 반면 한국은 유교주의와 가족주의 영향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립보다는 가족과 친족관계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조궁호, 2006). 유학사상에서는 인간의 기본특성을 사회적 관계체로 보기 때문에(조궁호, 2011) 한국노인들은 문화적 특성상 자신들의 존재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으며 특히 자신과 가장 밀접한 대인관계인 가족관계 및 자녀를 자신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결부하여 지각한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권에 있는 서구노인들은 독립적인 삶과 이를 위한 인지적 기능의 유지가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국내연구와 국외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차이점은 국외연구는 국내연구보다 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생활양식’, ‘긍정성, 유머’, ‘전반적 기능 수행’, ‘성격’, ‘사회환경’, ‘외로움의 부재’, ‘종교 및 영성’, ‘신체적 외모’ 등이 있으며, 서구 연구에서 건강한 생활양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사회자원 및 시설을 의미하는 ‘사회 환경’과 ‘전반적 기능 수행’, ‘성격’, ‘종교 및 영성’ 등에 대한 강조는 서구에서 중시되는 개인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외연구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최근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 ‘긍정성, 유머’는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고조와 관련하여 볼 때, 국내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와 국외연구를 비교해보면 그 양상이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유지’는 두 문화권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하게 건강과 기능유지가 성공적 노화의 강력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 즉 배우자와 자녀와 관련된 요인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진 반면에, 국외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국외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배우자 유무’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이 국내 연구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및 지원교환’ 역시 국내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지만 국외연구에서는 드물게 나타나,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가족관련 요인들에서 문화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외연구에서는 개인성장과 관련된 ‘자아 및 현실수용’ ‘성격’ ‘변화에 대한 적응’ ‘긍정성’ ‘상상력, 창조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서구와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자료와 국외자료의 차이 역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권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서구에서 생성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다른 문화권에 적용할 경우,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문화에 적절한 기준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필요성은 Rowe와 Kahn(1998)의 모델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가 오히려 힌두문화권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Leder(1999)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몇몇 연구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Keuth, Fry와 Ikkel(1990)의 연구에 따르면, 홍콩노인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심리적 및 신체적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의 기준이지만, 미국노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성공적 노화에 중요하다(Torres, 2002에서 재인용; Fry, C. L., Dickerson-Putman, J., Draper, P., Ikels, C., Keith, J., Glascock, A. P., Harpending, H. C., 1997).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달라진다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화에서도 서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한국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학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관인 군자와 성인은 자기수양과 대인관계의 조화,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서구에서 말하는 개인적 행복과 적응에 초점을 두는 성공적 노화와 달리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조공호, 2006). 따라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사회를 배려하고, 자기성찰과 자기개선을 포함한 집단주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노화 개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의 성공적 노화 개념과 달리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활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타인을 배려하며, 삶에 대한 감사, 자원봉사 등 긍정의 힘을 통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비록 객관적 삶의 조건은 열악할지라도 노인들이 성숙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외부적 지표가 아니라 심리적 자원의 보유여부에 따른 성숙한 노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잘 늙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Torres, 2002).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영향요인들에 관한 79편의 문헌 개관 결과는 한국 문화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한국 노인에게 적절한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물론 한국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어왔다(강인, 2003;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김경연, 정여진, 2006; 박경란, 이영숙, 2002; 백지은, 2008; 백지은, 최혜경, 2005; 성혜영, 유정현, 2002; 이수림, 조성호, 2007; 이창식, 2007; 정순돌, 2007a;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2008;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은 중복되고, 성공적 노화자의 비율이 연구마다 매우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서 더 나아간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성공적 노화 대신 '성공적 노후'(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김희주,

주경희, 2008; 정순돌, 2007b), '잘 늙는 것(aging well)'으로의 용어 전환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체개념을 찾으려는 작은 시도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태동된 개인의 생산성이나 자율성을 강조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대체하여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안내할 수 있는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년복지연구, 20(2), 95-116.
- 고대선 (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413-424.
- 김경식,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424-432.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경호, 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0(1), 211-231.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5.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 (2006).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김윤정 (2008). 한일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지각 비교. 한국노년학, 28(3), 567-583.
-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세대 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7, 265-288.
- 김희주, 주경희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종환, 김한곤 (2009).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학, 12, 95-111.
- 백지은 (2006).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 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백지은 (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28(2), 227-249.
- 백지은, 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성혜영, 유정현 (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성혜영, 조희선 (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영희, 이혜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안정신 (2010). 성공적 노화 또 하나의 신화. 제 63차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35-47.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양영자 (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7.
- 유희정 (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634.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윤현숙, 유희정 (2007).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중요 생애사건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27(4), 797-827.
-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량 (2008). 인생의 보람과 후회: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28, 5-35.
- 이수림, 조성호 (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65-87.
- 이은석, 안찬우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4), 325-337.
- 이종영 (2005).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 심리적 인지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3), 167-183.
- 이창식 (2007). 성공적 노화에 대한 청소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 관계학회지, 12(3), 85-107.
- 장휘숙 (2006). 성인심리학-성인발달, 노화, 죽음. 서울: 박영사.
- 장휘숙 (2007a).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2007년 한국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움: 고령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기-고령화 사회의 심리학.
- 장휘숙 (2007b). 중년성인과 노인의 SOC 전략과 생활만족-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31-144.
- 정상남, 신학진 (2009a). 노인의 이미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6, 165-187.
- 정상남, 신학진 (2009b).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 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383-1396.
- 정병은, 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 정순돌 (2007a).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순돌 (2007b).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청년, 중년층, 노년층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36, 201-219.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조공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비교. 지식산업사.
- 조공호 (2011). 유학사상에서 본 성숙한 노화. 한국인의 성숙한 노화를 향하여-제 1회 한국사회기반연구 워크숍 자료집, 37-75.
- 최혜경 (2008). 한국 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하정연, 오윤자 (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전략 관련 변인 연구-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31-144.
- 홍숙자 (2010). 노년학 개론. 하우.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홍현방 (2003).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대전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1, 49-72.
- 홍현방, 최혜경(2003). 성공적인 노화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Atchley, R. & Barush, A. (2004).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10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Baltes, P. B. (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5), 579-594.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pp. 1-34).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Baltes, P. B. & Baltes, M. M. (1993). *Successful aging-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Baltes, M. M., Freund, A. M., & Lang, F. (1999). *The measurement of*

-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OC) by self report.* Berli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 Bowling, A. B. (2007). Aspirations for older age in the 21st century: What is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4*(3), 263-297.
- Chou, K. L. & Chi, I. (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4*(1), 1-15.
- Crosnoe, R. & Elder, G. H. (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Depp, C. A. & D. V. Jeste(2006).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1), pp. 6-20.
- Faber M. V., Gussekloo, J., & Knook D. L. (2001). Successful aging in the oldest old: Who can be characterized as successful aged?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1*, 2694-2700.
- Fisher, B. J.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41*(3), 239-251.
- Freund, A. M. &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4) 531-543.
- Keuth, J., Fry, C. L., & Ikel, C. (1990). Community as context for successful aging. In J. Sokolovsky (Ed.),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Bergin and Garvey: New York, Connecticut and London.
- Leder, D. (1999). Aging into the spirit: From traditional wisdom to innovative programs and communities. *Generations, 23*(4), 35-41.
- Mossakowska, M., Barcikowska, M., Broczek, K., Grodzicki, T., Klich-Raczka, A., Kupisz-Urbanska, M., Podsiadly-Moczydlowska, T., Sikora, E., Szybinska, A., Wieczorowska-Tobis, K., Zyczkowska, J., & Kuznick, J. (2008). Polish Centenarians Programme -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successful ageing: Aims, methods, and preliminary results. *Experimental Gerontology, 43*(3), 238-244.
- Reeker, G. T. (2002). Prospective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in community-residing and institutionalized canadian elderly. *Ageing International, 27*(1), 42-64.
- Rowe, J. W., & Kahn, R. I.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Rowe, J. W., & Kahn, R. I.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1), 35-55.
- Schulz, R. & Heckhausen, J. (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7), 702-709.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6), 727-733.
- Tate, R. B., Lah, L., & Cuddy, T. E. (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The Mantoba Follow-Up Study. *The Gerontologist*, 43(5), 735-744.
- Tornstam, L. (1994). Gerotranscendence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In L. E. Thomas & S. A. Eisenhandler (Eds.), *Aging and Religious Dimension*(pp. 203-225). Greenwood Publishing Group, Westport.
- Tornstam, L. (2003). Gerotranscendence from young to old age. Online publication from *The Social Gerontology Group*, Uppsala. Retrieved <http://www.soc.uu.se/publications/fulltext/gtransoldold.pdf> on 6 April 2004.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Torres, S. (2003).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of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8(1), 79-100.
- Vaillant, G. E.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Westerhof, G. J. & Bode, C. (2006). The personal meaning of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Gender differences in middle and late adulthood. In S. O. Daatland & S. Biggs (Eds.), *Ageing and Diversity: Multiple pathways and cultural migrations*. The Policy Press: UK.

1차 원고 접수: 2011. 07. 11

수정 원고 접수: 2011. 08. 16

최종 게재 결정: 2011. 08. 17

Critical Aspirations from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eong-Shin An¹ Young-Sook Chong² Yeo-Jin Jeong³
Su-Gyun Seo² Cooney, T. M.⁴

¹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³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⁴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Univ. of Missouri-Columbia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successful aging studies in western and Korean cultures through 79 researches in last 20 years. First, there was no academic agreement about successful aging concept among researches. Therefore successful aging was accessed with various different components and there was mixed using of componen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aging in diverse empirical studie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on rate of elderly's report as successful aging because of the disagreement of what was successful aging. In addition, there was no consideration abou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in the elderly group. Lastly, this study compared the components and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aging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Based on the results, cultural influences on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was discussed and necessity of re-conceptualization of aging well in terms of Korean culture was emphasized.

Keywords: successful aging, cultural differences, component, influential factor, aging well